

## 서울의대학술지가 걸어온 길 (1985-199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1985년 3월에 발간된 제26권 제1호, 통권 101호는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잡지명을 『서울醫大學術誌』에서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란 영문 타이틀로 바뀌서 발간된다. 이순형(李純炯) 현 학장이 술회하였듯이 “1960년 창간 당시의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획기적인 쾌거였었고, 영문판 대학잡지로 발간되면서 부터는 우리나라 의학수준의 향상과 국제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잡지” 이었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 우리 대학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더 이상 수용할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감에 따라, 이제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퇴역하는 당당함과 오만함으로 영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1995년 12월호, 통권 144호로서 한국 의학잡지사의 뒀안길로 물러가는 영문판 대학학술지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 걸어온 지난 10여년을 더듬어 본다.

### 1. 영문판 대학잡지의 태동

『서울醫大學術誌』제25권 제4호는 1960년 창간 이래 1984년 12월 30일까지 25년간 우리 잡지에 수록된 모든 논문을 총 망라한 색인본으로 출간되었다. 『서울의대잡지』 및 『서울醫大學術

誌』란 이름으로 발간되었던 총 839편의 논문을 분류하여 총목차, 저자별 색인 및 주제별 색인을 수록한 이 잡지는 『서울醫大學術誌』의 역사로 치면 창간 이래 통권 100호가 되는 셈이자, 국-한문으로 발간되는 마지막 잡지가 되었다. 당시의 발간인인 김영균 학장은 그 당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60年 9月 1日 第1卷 第1號의 創刊辭에서 當時 發行人이던 故 明柱完 學長은 創刊의 …(중략)… 그로부터 四半世紀가 經過한 오늘날까지 우리 教授들이 舍心協力하여 學術誌를 定期的으로 發刊하여 왔고, 論文 內容面에서도 日進月步 알차고 充實해져서 海外 學者들의 別冊 要求가 答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多幸하고 다같이 慶賀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第101號(第26卷 第1號) 부터는 體裁를 一新하고, 남의 知識을 受容하는 姿勢에서 우리가 創出한 知的 產物을 積極的으로 남에게 알리는 編輯方向으로 轉換하여 英文論文集으로 發刊하기에 이른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중략)… 그리하여 『서울醫大學術誌』를 世界的 權威를 갖는 金子塔으로 만들어 後學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서울醫大學術誌 통권 100호 부록」

서문 중에서 -

1983년부터 『서울醫大學術誌』의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김승원(金昇元)은 국문판 잡지를 마지막으로 발행하고, 그 뒤를 박찬웅(朴贊雄) 편집위원장과 이종욱(李宗郁), 지제근(池堤根), 이정상(李正相), 이정빈(李正彬), 그리고 채종일(蔡鍾一) 편집위원에게 인계해 주었다. 새로운 편집진은 통권 100호의 말미에 '다음호(제26권 제1호) 부터는 완전 영문판으로 개정되어 출간한다'는 안내문을 실고 있다.

대학 학술지가 완전히 영문으로 발간된다는 사실은 그 당시로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제호 아래 13편의 영문으로 된 논문을 게재하고 1985년 3월 30일 발간된 Vol. 26, No. 1, 통권 제101호 잡지는 국내 의학 잡지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의학연구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전인차 역할을 하게 된 중대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 2. 영문판 대학잡지 발간의 배경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 발간되기 까지의 과정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해외의 우수한 잡지에 게재하기 않고 일개 대학의 학술지에 불과한 우리 잡지에 게재할 만큼 우리 잡지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수들의 애교심이 남달리 강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잡지에 게재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학내 교수들에게 자신의 연구내용을 알리고 싶은 경우나, 연구원 혹은 대학원생을 훈련할 목적으로 영어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혹은 보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외국 잡지에 게재를 신청하였다가 실패한 논문, 혹은 본인이 편집위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편집위원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문판 대학 잡지가 성공적으로 발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리란 예측이 든다. 그 첫째는, ① 국문이건 영문이건간에 우선 충분한 수의 연구논문이 우리 대학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해외로 빠져 나가는 논문을 제외하고도 우리 잡지를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논문이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 대학에서 수행되어 발표되는 연구 논문의 수가 우리 잡지에서 요구하는 연간 최소한 40편을 훨씬 넘게 하도록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② 둘째는, 저자들이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잡지 편집에 영문번역사를 직접 혹은 임시직으로라도 고용할 만큼 우리 잡지의 재정이 넉넉하지는 물론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논문의 영문작성은 저자들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일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 통상 3-4배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자들에게 영문작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만 잡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한글로 쓴 논문을 영어로 번역까지는 못해 줄 망정, 영어로 쓴 논문에 대한 영문교정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자는 것이었다. 그 업무를 맡은 것은 당시 서울에 주둔하는 미8군 군의관이었고, 편집진은 군 당국의 협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영문 잡지의 발간이 가능했던 세번째 이유는, ③ 저자들의 영어논문을 작성하는데 대한 욕구와 의지가 잡지를 발간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개방화와 국제화의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절이었으며, 대학에서는 학내 및 학외 연구비가 사상 유례없이 확충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임상의학 분야에서도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에서 최신의 의학 연구 경험을 쌓은 많은 젊은 교수들이 국제적 수준의 좋은 논문들을 양산해 내기 시작하였던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의 조성 과 더불어 ④ 당시의 학장 및 편집진의 영문잡

지 발간에 대한 강한 의지도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 탄생하는데 전 인차 역할을 하였음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 3. 영문판 대학잡지의 출범

#### 1) 영문판 대학잡지 창간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발행인 김영균(金英均), 주간 박찬웅(朴贊雄)의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 Volume 26, Number 1, 통권 제101호 잡지가 1985년 3월 30일 드디어 출간되었다. 첫 출범이니만큼 논문의 편수도 넉넉해서 장가용(張家鏞) 등의 논문 ‘quantitative study of thymocytes injected into young rats born to azathioprine-administered pregnant rats’을 위시해서 총 13편의 원저가 실리는 개점성시를 이루었다. 모든 논문은 물론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매 논문마다 말미에 국문초록을 첨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잡지에는 국문초록과 맨 뒤에 실리는 권-호 및 발행인을 알리는 두 군데만 한글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모두가 영문으로 되어 있었다. 아직 칼라 화보를 다루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인쇄의 질도 매우 깔끔하였다. 권 말미에는 독자들에게 투고규정을 알리는 “INSTRUCTIONS FOR CONTRIBUTORS”가 있었는데, 벵쿠버 스타일의 투고규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영문판으로 4번째 호가 되는 1985년 12월호(제26권 제4호) 부터는 지난 1년간 우리 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별 및 주제별 색인이 부록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 2) 영문으로 작성된 종설

이어 발간된 통권 102호에서는 9편의 원저와 더불어 단신(Brief Communication) 1편이 실려 다양한 형태의 의학정보를 전달하려는 편집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986년 3월호인 통권 105호 부터는 편집자문위원(Editorial Advisory Board)이 구성되면서 그 명단이 잡지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편집자문단에는 비교적 젊은 교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영문교열을 도와주고 있었던 Richard M. Briggs 등 당시의 미8군 121 후송병원 군의관의 명단이 편집자문위원에 실리게 된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실의 하나는 통권 101호 부터 영문으로 작성된 종설논문(Review Article)을 처음으로 실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역할은 비뇨기과 이희영(李熙永) 교수가 ‘experience with 3,520 infertile male patients and a clinical perspective’란 제목으로 맡았는데, 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수님들께 종설원고를 부탁하여 게재한다는 편집방침이 생긴 것도 이 무렵이다. 한글로도 쓰기 힘든 종설 논문을 영어로 작성한 원로 교수님들의 노력에 당시의 편집진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을 것이다. 이후 계속해서 제27권 2호에는 British Columbia 대학 김승업(金承業) 교수의 ‘biology of neural cells in culture: a review’, 제27권 제3호에는 흉부외과 이영균(李寧均) 교수의 ‘a twenty seven year experience of open heart surge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등의 종설 논문이 뒤를 이어 게재되었다.

#### 3) 모범적인 심사제도

영문판 잡지의 역대 편집위원장은 제10대에 박찬웅(朴贊雄), 제11대에 이순형(李純炯), 그리고 제12대에 지제근(池堤根)이 맡았는데,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은 이들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발간하는 종합학술지로서는 드물게 매우 조직적이고 모범적인 편집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편집위원들은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누구보다도 학술활동이 왕성한 교수들이었다. 국문판 학술지의 발간 시절과 마찬가지로 종설, 원저, 단신, 그리고 증례보고에 속하는 원고를 다루었는데, 편집위원회 사무실에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원고에 한해 접수증을 발급해 줌과 동시에 영문교열을 의뢰한다. 일정 수의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의 심사위원을 정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에 따라 2인씩 배정되었는데, 편집위원이나 편집자문위원 중에서 1인이 선정되며 나머지 1인은 학내 혹은 학외 인사 중

관련 전문가로 정하였다. 심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물론 비밀에 부쳐진채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심사결과는 “① 현 상태로 게재가, ② 일부 수정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사 요망, ④ 게재 불가”의 네가지로 분류되었다. 재심사가 요청되어 수정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가 요청되면, 제3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3차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심사가 요청되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 잡지는 대학학술지 이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싶다.

이 시기에 “서울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행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져 학내 학술활동에 관한 관련규정이 정비·정착되었으며,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의 영문판 투고교정도 완성되었다. 편집실무를 위한 제반 양식과 관련 서류가 전산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본 잡지의 편집 운영체제는 후발하는 몇몇 우수한 학술지에서 인용해 가기도 하였다.

#### 4) 영문 원고의 교열

본 잡지의 기고자들은 모두가 학내 교수들이므로 바쁜 일과에 쫓기다 보면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 편집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줄 적절한 외국인을 찾았으나 적절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었고, 당시의 재정상태도 충분하지 않아 일단 포기하였다. 결국은 저자가 직접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보내오면,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영문을 교열해주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초창기에는 용산 미8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에게 부탁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한 영문을 교정 받았으며, 1년후인 1986년 3월호 부터는 Richard M. Briggs, Thomas P. Dove, Wayne T. Honeycutt, Reginald G. Moore, Demetrios G. Tsoulos 등 다섯명의 영문편집인이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정식 위촉되기

에 이르렀다. 이들 영문 편집인들은 모두가 의사이었기 때문에 투고된 원고의 영문은 물론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우리 잡지에 게재할 예정은 아니지만, 외국에 보낼 원고의 영문에 자신이 없어 우리 잡지의 원고속에 살짝 끼어 넣어 영문교열을 받는 암체논문(?)도 있었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간혹 흥미로운 논문이 있으면, 미군진의학회에 와서 발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6년 이후 약 5년간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영내 출입의 번거로움, 군의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편집위원의 잦은 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영문교열 업무의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처음에는 Carol Bechtel이 수고하였고 그가 귀국한 후에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도움으로 James Foley를 본 학술지의 편집보조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비록 의학에는 문외한이었지만 한국어를 이해하는 영미인이었으므로 본 학술지를 위해 크게 도움을 주었다.

#### 5) 타 국내잡지에 대한 기여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 대학에서 발행하는 영문판 종합학술지로서 1985년에 출범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국내의 연구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겨 앞서 언급하였던 대로 국내에서 연구된 연구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영어논문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가 1986년 9월에 창간되었는데, 이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본 잡지의 10대 편집위원장인 박찬웅(朴贊雄)과 12대 편집위원장인 지제근(池堤根) 등이 참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에서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잡지는 국내의 영문 논문을 게재하는 종합학술지로서 발전하다가 지제근(池堤根) 편집위원장의 노력에 의해 나중에는 Index Medicus

에 등재되는 등 거듭된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 잡지 이외에도 국내 여러 의과대학의 학술지와 몇몇 신간되는 학회 잡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의 체제를 따라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 6) 번성기 : 다양한 논문을 수용하는 잡지

1986년 6월호인 제27권 제2호에는 1편의 종설, 7편의 원저, 그리고 2편의 증례보고가 실렸으며, 그 다음호인 제27권 제3호에 이르러서는 1편의 종설(Review), 6편의 원저(Original Articles), 2편의 증례보고(Case Reports), 그리고 1편의 단신(Brief Communication)이 게재되어 다양한 논문을 수용하는 종합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출범 이후 1년 9개월이 지나면서 비로소 안정기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이 잡지부터 편집인에 박찬웅(朴贊雄), 편집위원에 지제근(池堤根), 이종욱(李宗郁), 이정상(李正相), 그리고 편집간사에 이정빈(李正彬)과 유근영(柳權永)이 수고하였다.

제27권 2호에 실린 이정상(李正相) 등의 논문 'effect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of membranous nephropathy'는 광학현미경 소견을 담은 화보를 칼라로 편집하여 게재하는 첫번째 논문이 되었다. 이후 계속 안정기에 들어간 우리 잡지는 매 호마다 9-10편의 원저 및 증례보고 등을 실는 잡지로 번성하였다. 1987년 6월호인 28권 2호 부터는 편집간사로 채종일(蔡鍾一)이 이정빈(李正彬)의 자리를 물려 받았으며, 일부 영문교열 편집자문단의 이름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별 변동없이 잡지의 편집이 계속되어 왔다.

1989년 9월호인 30권 3호부터 편집간사가 채종일(蔡鍾一), 황덕호(黃德浩)로 바뀌었고, 이어 31권 2호 부터는 제11대 편집위원장으로 이순형(李純炯)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본교 교수들의 왕성한 연구 열기 덕분에, 그리고 일부는 편집위원들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인지 하여간 매 호마다 9-10편의 논문을 그럭저럭 게재할 수가 있었다. 항간에는 이 잡지 편집위원 중에 본교 승

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편은 그 잡지에 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 7) 원고의 수난기

제 31권 제 2호 부터는 편집위원장에 이순형(李純炯), 편집위원에 지제근(池堤根), 오승근(吳承根), 서정기(徐廷琪), 이정빈(李正彬), 편집간사에 채종일(蔡鍾一), 황덕호(黃德浩)가 수고하였다. 그러나 본교 교수들의 연구가 국제화의 바람을 거세게 타기 때문인지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의 원고 수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제31권 3호는 말해주고 있다. 원저 4편, 증례보고 3편, 총 7편으로 겨우 보리고개를 넘기긴 하였지만, 이후부터는 극심한 원고난이 계속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편집진의 타개책이 다각도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제31권 2호에서는 타계하신 서병설(徐丙高) 교수에게 'Fibricola seoulensis Seo, Rim, and Lee, 1964(Trematoda) and Fibricoliasis in Man'란 제목의 종설을 청탁하여 겨우 쪽수를 메꾸었는가 하면, 제31권 3호 부터는 CPC(Clinicopathologic Conference) 토의 내용을 영어로 정리하여 게재하는 교육지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1권 제3호에는 5편의 원저에 증례보고 1편, CPC 1편 밖에는 실리지 않는 알박한 잡지가 되고 말았다. 지제근(池堤根) 편집위원은 매 호마다 CPC 결과를 게재하기 위해 기일내에 영문 번역문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일년에 네번씩 감수해야만 하였다.

#### 8) 새로운 활력을 위한 몸부림 : 백서 발간

1990년 12월호는 부록으로 1960년 창간이후 1989년까지의 모든 논문을 모아 총 색인집을 발간하였다. 이 별호에 의하면 그동안 『서울의대 잡지-서울醫大學術誌-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에 수록된 총 논문의 수는 1,055편 이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논문을 투고한 교수는 당시 편집위원이자 제12대 편집위원

장을 지낸 지제근(池堤根) 으로 총 116편의 논문을 본 잡지에 투고하였다. 1991년 9월호인 32권 3호 부터는 영문 편집인 James A Foley 가 편집보조위원(Editing Assistant)으로 편집위원 명단에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부터 예고되던 원고난은 더욱 심화되어 1991년 3월호에는 총 6편, 6월호에는 7편, 9월호에는 8편, 12월호에는 겨우 9편만을 게재하게 되는 시련기를 거치게 된다. 투고 원고의 부족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의대학술지의 폐간’ 문제가 편집위원회 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1991년 12월호인 32권 4호부터는 편집간사를 채종일(蔡鍾一)과 유근영(柳權永)으로, 그리고 1992년 12월호인 33권 4호에서는 편집간사를 유근영(柳權永)과 전용성(全勇成)으로 바꾸고 편집위원에 김전(金典), 이명철(李明哲), 임정기(任廷基), 그리고 서정욱(徐廷旭)을 보강하여 우리 잡지의 회생을 시도하는 처방을 내렸다. 1992년 3월호인 제33권 1호 부터는 잡지의 타이틀 면을 대폭 개선하여 서울의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잡지임과 동시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 서울대학교 출판부가 인쇄하는 것임을 명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맨 뒤의 투고규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바꾸는 열의를 보인 결과 때문인지, 종설 1편, 원저 6편, 증례보고 1편 그리고 CPC 1편 이 실리는 개가를 올려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이 소생하는 듯한 기쁨을 잠시 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1993년 12월호, 제34권 4호에는 원저만 총 11편의 게재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힘입은 편집위원들은 1994년 3월에 『서울의대학술지 백서』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우리 잡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 서문에서 당시의 이순형(李純炯) 편집위원장은 우리 잡지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수가 동참하기를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글을 쓰고 있다.

“창간 당시의 우리 나라 여건 하에서는

획기적인 쾌거였었고 또한 우리 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점차 국내에 의대가 난립되면서 우후죽순처럼 각 의대 학술지가 범람하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玉石俱焚의禍를 입게 되었고 따라서 『서울의대학술지』 발간의 無用論까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학당국이나 우리 의대의 교수들이 학술지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관심이 없이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여 주변의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왔고, 둘째로는 우리 대학교수들이 각 소속 학회 專門學術誌를 책임지거나 주도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綜合學術誌인 「서울의대학술지」에의 투고가 소홀해진 데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더구나 1985년 우리 학술지를 영문으로 발행하게 된 시점에서 우리 의대의 학위 청구논문을 국문논문만으로 한정한 점, 그리고 외국 유명학술지 게재논문 우대 및 포상, 우리 대학 내외의 정책방향이 학술지 육성과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추진된 사실은 더욱 原稿難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략)…

역사를 이룩하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의대학술지를 구하고 새 활기를 불어넣기는 힘들겠지만 폐간하는 것은 한 순간의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창간 당시 학장이시던 明柱完 교수의 創刊辭 중 다음 구절은 오늘날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쓰신 것 같아 숙연해질 뿐입니다.

「이 의대잡지만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학교의 운명과 함께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라마지 않는 점은 이 잡지의 권위가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명주완 학장님의 遺託이 아니라도 우리 의대의 秀越性을 유지하고 우리 나라 의학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기 위

해서는 우리 「서울의대학술지」가 그 중심  
핵이 되어야 한데 편집위원 일동은 합  
의하고, 그 활로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白晝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집위  
원 일동의 충정을 널리 이해하시리라 굳게  
믿으며 이를 검토하신 후 「서울의대학술지」  
의 일대 개혁에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성원  
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여 마지않  
습니다.”

- 1994년 3월 「서울의대학술지 백서」  
서문 중에서-

### 9) 영문판 대학잡지의 정리기

제12대 편집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지제근(池  
堤根)은 『THE SEOUL JOURNAL OF MEDI-  
CINE』의 부활을 위해 몇가지 극약처방(?)을 내  
린다.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에 우리 잡지를  
Index Medicus에 등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본 잡지에 게재된 논문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매년 2편씩 선정하여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  
하는 명목으로 \$1,000 썩을 지불한다는 포상제  
도가 그 하나이고, ② 우리 잡지를 아끼고 사랑  
하자는 동참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빠른 시  
일내에 본교 『대학발전세미나』의 토의 주제로  
“서울의대학술지 진흥방안”을 선정하여 토의하  
자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의 하나 이었다. 이외에  
도 ③ 전임 편집위원장인 현 이순형(李純炯) 학  
장과 지제근(池堤根) 현 편집위원장 연명으로  
학내교수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내 우리 잡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하고 해  
외 유명잡지에 보낼 수준의 좋은 원고를 우리  
잡지에 당분간만이라도 실어 달라는 애원(?)을  
해 보기도 하였다. 비장한 각오하에서 내린 인  
고의 처방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이러한 몸부림의 하나로 1994년 8월 19일 수  
안보 상록회관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  
수들이 모여 대학발전세미나를 갖는 자리에서  
“서울의대학술지 진흥방안”에 관한 분과토의가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처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 서울의대학술지 개선방안 〉

① 잡지의 성격이 명확히 해야 한다. 원래는  
「대학동문지」로서 출발하였으나, 향후에는 서  
울의대가 발행하면서 투고층 및 독자층을 점  
차로 개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학술  
지가 되어야 한다.

② 외국의 독자를 겨냥하는 영문 종합학술  
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게재논  
문의 내용이 다분히 한국적인 것이 되어야 한  
다.

③ 한국인 특유 질병의 특성이나 임상적 소  
견 등을 소개한 review, editorials, original  
articles 등을 주로 실어야 한다.

④ 현재 이 잡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처방은 Index Med-  
icus에 등재되는 일이다.

⑤ 우리 교수 모두가 이 잡지를 살리기 위  
해서 국제잡지에 실릴 수 있는 자기의 좋은  
논문을 이 잡지에 집중적으로 투고하는 단기  
간 집중노력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비교적 짧  
은 시일 내에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교수 모두가 이 잡지를 위해서 향후 2-3년간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현재의 교수 승진점수제는 오히려 외국  
잡지를 우대하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잡지는  
상대적으로 비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진정  
으로 대학 집행진이 이 잡지의 발전을 원한다  
면, 우수논문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논  
문과의 가산점수제 차이를 줄이도록 건의한  
다.

⑦ 전문편집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난은 계속되었다.

### 4. 임무를 다하고 물러나는 퇴역 잡지의 마지막 번

1985년 3월에 영문판 『THE SEOUL JOUR-

NAL OF MEDICINE』이 처음 발간된 이래 처음 5년 동안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의 수가 과거 국문판 『서울醫大學術誌』시절에 비해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내 의학관련 전문학술지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학내에서 교수들에 의해 작성되는 논문의 수도 이들 전문지와 본 잡지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여 우리 교수들의 연구 의욕이 전례없이 왕성하였던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우리 잡지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본다. 학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질적 수준이 거의 국제적 수준에 이르러 개방화 이후 잦은 해외 연구활동 및 국제적 학문교류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외국의 유명 해외학술지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필수불가결한 귀결이자 동시에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학문의 국제화는 국내 대학잡지의 상대적 빈곤을 야기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진 셈이고, 따라서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에는 우리 잡지가 해야 할 역할이 나름대로 있었으며, 우리 교수들이 연구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여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잡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 잡지가 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는 무언의 암시가 흐른다. 그렇다면 물러나야 한다.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는가? 조용히 그리고 남 보란듯이 당당하게.